
17세기 중반 나선정벌의 추이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계 승 범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머리말

I. 17세기 중반 만주의 정세와 조선의
출병 동기

II. 1차 원정의 추이와 그 결과

III. 2차 원정의 추이와 그 결과

맺음말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K-2012S1A5A8024)
- 투고일: 2012. 5. 19. ● 심사일: 2012. 5. 21. ● 게재확정일: 2012. 6. 7.

www.kci.go.kr

요약

청의 入關(1644)을 계기로 많은 인구가 중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만주 일대의 인구는 크게 줄었다. 또한 남쪽에서 여전히 항거하는 南明을 제압하는 데 군사력을 집중하다보니, 만주 일대 청의 군사력은 이전에 비해 크게 약해졌다. 한반도의 조선도 만주 일대에 관심을 가질 처지가 아니었다. 만주지역을 夷狄의 땅으로 간주해온 전통적 인식 틀도 한 요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삼전도항복(1637) 이후로는 청의 내정간섭을 견뎌내는 일만으로도 힘에 부쳤기 때문이다. 17세기 중반에 까자크인을 앞세운 러시아가 흑룡강과 송화강을 따라 만주 일대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였다. 흑룡강 일대를 따라 청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진 연이은 전투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청은 조선군의 화력을 이용하고자, 1654년과 165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에 銃手兵의 파병을 요구했다. 당시 청의 요구를 거절할 형편이 아니었던 조선 조정은 각각 150명에서 250명 규모의 소규모 부대를 출정시켰으니, 이것이 이른바 나선정벌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과 러시아의 자료를 토대로 삼아 서로 대조함으로써, 그동안 개설 수준에 머물던 나선정벌의 추이를 자세히 고증해 재구성한다. 또한 그동안 다소 민족적 시각에서 나선정벌의 역사적 의의를 일부 과장한 기존 설명을 넘어, 17세기 중반에 새롭게 형성된 만주 일대의 새로운 국제질서라는 맥락에서 사실적으로 재해석한다.

주제어 : 조선, 나선, 러시아, 송화강, 흑룡강, 依蘭縣, 영고담, 효중, 申瀏

머리말

羅禪征伐이란 17세기 중반 북만주로 남하하던 러시아(나선)를 저지하려던 청의 출병 요구에 따라 조선군이 송화강과 흑룡강 유역으로 1654년과 1658년에 걸쳐 두 차례 출정한 사건을 가리킨다.¹⁾ 근대에 들어와 나선정벌에 대해 최초로 연구논문을 쓴 이는 1930년대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였다. 그는 조선의 일부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원정의 배경과 전황을 개괄하고, 그 의미를 약술했다.²⁾ 해방 후에 국내 학자들이 나선정벌에 대해 몇 차례 더 검토했는데,³⁾ 이나바의 연구 성과를 뛰어넘는 내용이나 해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설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국내에서 『北征錄』과 『入送節目』 등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데 힘입어,⁴⁾ 조선군의 규모, 전투 상황, 화력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토대가 갖추어졌고, 실제로 관련 연구가 몇 개 나왔다.⁵⁾ 특히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자료까지 국내에 일부 소개되면서,⁶⁾ 나선정벌에 대한 이해에

-
- 1) ‘정벌’은 지극히 조선 중심의 표현이며, ‘원정’이 객관적 이름이다. 다만 이미 학계에 ‘나선정벌’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그것을 따른다.
 - 2) 稻葉岩吉, 1934, 「朝鮮孝宗朝於兩次滿洲出兵就」, 『靑丘學叢』 15 및 16.
 - 3) 姜周鎭, 1977, 「韓國과 러시아의 外交史의 考察」, 『大丘史學』 12·13; 全海宗, 1977, 「호란 후의 대청관계」, 『韓國史』 12, 國史編纂委員會, 389~393쪽; 崔韶子, 1997, 「청국과의 관계」, 『한국사』 32, 國史編纂委員會, 397~409쪽.
 - 4) 『북정록』은 흔히 『北征日記』로도 불리는데 박태근이 私家에서 찾아냈고, 2차 과병 절목은 반윤홍이 규장각에서 발견했다. 이에 대해서는 朴泰根, 1980, 『國譯 北征日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반윤홍, 2001, 「備邊司의 羅禪征伐 籌劃에 대하여: 효종조 寧古塔 과병절목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11 참조.
 - 5) 申基碩, 1979, 『間島領有權에 關한 研究』, 탐구당, 223~262쪽; 申基碩, 1980, 『北征日記: 附 北行日錄 車漢日記』, 탐구당; 朴泰根, 1982, 「朝鮮軍의 黑龍江出兵(1654-1658)」, 『韓國史論』 9, 國史編纂委員會; 李康七, 1982, 「朝鮮 孝宗代 羅禪征伐과 彼我 鳥銃에 대한 小考」, 『古文化』 20; 반윤홍, 각주 4의 논문 등을 들 수 있다.
 - 6) 러시아 자료의 일부 소개 및 그 한글 번역에 대해서는 朴泰根, 각주 4의 책, 165~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원정의 실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 전투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해 어떻게 종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한 연구가 별로 없다.⁷⁾ 최근에 1차원정과 2차원정의 전투상황을 일부 고증한 연구가⁸⁾ 발표되었지만, 전투의 실상에 관심을 두었다기보다는 나선정벌에 대한 후대의 기억이 시기별로 변한 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둔 탓에, 원정의 실상을 밝히는 데에는 소홀했다. 따라서 나선정벌의 추이와 실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설서 수준의 이해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의 요구에 따라 두 차례 원정을 감행한 점과 2차 원정 때의 전투에서 러시아 지휘관 스테파노프(Stepanov, ?~1658)를 전사시키는 전과를 올린 점을 강조하고, 그런 원정을 통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데 조선이 기여했음을 부각시키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이는 다분히 민족적 自國史 시각에 의한 설명으로, 원정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런 설명의 사실성에도 문제가 있다.

나선정벌은 3개국이 개입한 국제분쟁이며, 종족으로 보면 만주·몽골·漢人·西蜀人·조선인·까자크(코사크)인·러시아인 등에 더해 송화강과 흑룡강 일대의 원주민들까지 참전한 多種族 사건이었다. 따라서 나선정벌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청·러시아 3국의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분석해야 한다. 다행히도, 1차와 2차 원정 관련 조선 측 자료는 원정의 기본 윤곽을 잡는 데 필요하다. 특히, 2차 원정 때 조선군

172쪽 참조.

7) 1, 2차 원정의 추이에 대한 설명은 박태근(각주 5의 논문, 243~247쪽)과 신기석(각주 4의 책, 1979, 239~243쪽)이 이미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박태근의 논문에는 각주가 없어 기술 내용의 전거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 신기석 논문의 해당 부분은 稻葉岩吉의 각주 2의 논문의 설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면이 있다.

8) 계승범, 2009,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45~275쪽.

사령관이던 申澗(1619~1680)가 남긴 『北征錄』은 당시 전황과 추이를 전체적이고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이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지휘관 스테파노프가 올린 보고서와 그 휘하의 까자크 병사들이 상부의 심문에 응한 증언 등이 남아 있어, 조선 측 자료와 일일이 대조하며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청의 지휘관이 남긴 자료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 나선정벌 관련 청 측 자료는 편년체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는다.⁹⁾ 그래도 조선과 러시아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고 전투 추정 장소를 답사해 보면, 두 차례 원정의 추이를 거의 다 복원할 수 있다.

한편, 나선정벌은 러시아의 東進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청과의 충돌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단지 동아시아뿐 아니라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접근한 세계사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선정벌과 유사한 몇 차례의 무력충돌 후에 그 유명한 네르친스크조약(1689)으로 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이 체제가 19세기 후반의 이른바 西勢東漸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사만 보더라도, 한국의 근현대사는 러시아(소련)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접하고 있으므로, 조선과 러시아의 첫 만남인 나선정벌은 通時史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다양한 문제의식으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나선정벌의 배경을 17세기 중반 만주의 정세 및 조선의 입장과 관련해 살피되, 연구의 중점을 두 차례에 걸친 나선정벌의 추이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둘 것

9) 러시아 관련 기록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청 자료인 『平定羅刹方略』(『續修四庫全書』 39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과 『朔方備乘』(같은 책, 740~742쪽)에는 나선정벌에 해당하는 전투에 대해 단 한 줄의 기록만 있다. “順治九年 駐防寧古塔章京海色率所部擊之 戰于烏拉村 稍失利”(『平定羅刹方略』 1:1a; 『朔方備乘』 2:2b) 이렇게 소략한 이유는 이 두 자료가 모두 康熙帝(r. 1661~1722) 이후의 對러시아 관계에 중점을 두어 기술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는 아직 알려진 자료가 없다. 順治帝(r. 1643~1661) 시기 병부 등의 題本에 수록된 檔案에서 산견될 가능성이 다소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다. 아울러, 결론부에서는 나선정벌의 의미를 17세기 후반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판도 형성과 관련해 간략히 해석하고자 한다.

I. 17세기 중반 만주의 정세와 조선의 출병 동기

만주(Manchu)의 入關(1644)으로 만주 일대의 정치적 긴장은 크게 완화된 듯하나, 비슷한 시기에 흑룡강 일대에 나타난 러시아 세력으로 인해 새로운 긴장이 감돌았다. 17세기 초에 러시아와 동북아시아(시베리아)를 연결해 준 주요 매개는 모피였다. 몽골의 침입(1237, 1240)이 있기 전부터 러시아지역의 公國들은 세금의 반 이상을 모피로 걷는 등, 모피는 화폐의 기능을 할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었다. 몽골의 지배권에 들어간 후에도 러시아 일대의 공국들은 조공의 일부를 모피로 바쳤다. 특히 14세기에 들어서면서 모스크바(Moscow) 공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모피무역을 거의 독점하더니 하면서 세력을 크게 키웠다.¹⁰⁾

이런 추세는 러시아가 16세기 후반에 우랄산맥을 넘어 東進을 시작하는 데 큰 동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러시아 당국은 국가 재정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는 모피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또한 그 모피를 매개로 한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정부가 독점하기 위해 시베리아 원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¹¹⁾ 단, 17세기 후반 무렵에는 북아메리카産 여우와 헤리

10) 중세 러시아의 정치와 경제에서 모피가 차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Janet Martin, 1986, *Treasure of the Land of Darkness: The Fur Trade and Its Significance for Medieval Russia*,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11) 러시아의 동진을 모피경제와 관련지어 설명한 연구로는 Raymond H. Fisher, 1943, *The Russian Fur Trade, 1550-17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8~47; Mark Mancall, 1971, *Russia and China: Their Diplomatic Relations to 1728*, Cambridge:

(beaver)의 모피가 대거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시베리아산 모피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국제 모피시장의 변동에 따라 시베리아산 모피의 가치에 등락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모피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자원 가운데 하나였으며, 17세기 내내 러시아 정부 한 해 수입의 10%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¹²⁾

까자크(Cossack)인을 앞세운 러시아의 동진은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 우랄산맥을 넘은 1581년 이후 식민도시를 건설하며 계속 동진해, 그들은 16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중앙아시아의 톰스크(Tomsk, 1598년)까지 이르러 거점을 확보했다. 그 뒤 1632년에는 바이칼(Baikal) 호수 서안에 이쿠츠크(Irkutsk)를, 북극해로 흐르는 레나(Lena)강 중류에 야쿠츠크(Yakutsk)를 각각 건설했다. 러시아는 바로 이 야쿠츠크를 거점으로 삼아 아시아대륙의 중앙부로 남하를 시도했다. 그러면서도 동진을 계속해서, 1643년부터 1646년까지 3년에 걸쳐 흑룡강 상류에서부터 하구까지 탐사를 마쳤다.¹³⁾ 또한 하구에서 바닷길로 북상하여, 1647년에는 오흐츠크(Okhotsk)를 건설하고 바다 이름을 오흐츠크해로 명명했다. 당시 오흐츠크의 러시아(까자크)인 상주인구는 54명이었으며, 1675년의 150명을 제외하고는 1730년대까지 한 번도 100명 선을 넘지 못했다.¹⁴⁾ 그래도 우수한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1~20 참조.

- 12) 17세기 러시아 경제에서 모피가 차지하는 비중의 시기별 부침 현상에 대해서는 Fisher, 각주 11의 책, pp. 108~122 참조. 한편, 16~17세기에 걸쳐 경쟁적으로 전개된 북미산 모피 무역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Harold A. Innis, 1999, *The Fur Trade in Canad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 9~83 참조. 러시아의 시베리아산 모피 가격은 당시 유럽과 아메리카를 잇던 모피 무역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 13) 러시아의 첫 흑룡강 탐사 및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Volpicelli Zenone (pseud. Vladimir), 1899, *Russia on the Pacific and the Siberian Railway*, London: Sampson Low, Maston & Company, pp. 100~108 참조.
- 14) James R. Gibson, 1969, *Feeding the Russian Fur Trade: Provisionment of the Okhotsk*

화력을 갖춘 이 정도 규모의 요새화된 거점을 위협할 만한 토착세력은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듯, 러시아는 우랄산맥을 본격적으로 넘은 지 불과 60여년 만에 아시아 대륙을 동서로 관통했고, 단순히 지나가지 않고 아예 요새를 만들고 눌러앉은 것이다.

이후 흑룡강 상하류를 자유롭게 누비면서, 1651년에는 강 상류에 알바진(Albazin) 요새를, 이듬해인 1652년에는 강 중류에 하바롭스크(Khabarovsk) 요새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이로써 사실상 흑룡강 권역을 거의 통제권에 넣었다. 또한 여기에 멈추지 않고 흑룡강의 큰 지류인 송화강을 거슬러 남하하는 등, 만주 일대를 강하게 압박하기에 이르렀다.¹⁵⁾ 그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자체 경제력을 갖추고 영주하기 위한 이주정책과 농지확보 정책 등을 꾸준히 전개했다.¹⁶⁾ 【지도 1】은 이와 같은 러시아의 동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만들었다.¹⁷⁾

이에 청으로서도 러시아 세력의 확대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17세기 중반에 두 나라 사이에는 외몽고와 북만주 일대에서 승패를 주고받는 전투가 꾸준히 이어졌다.¹⁸⁾ 그런데 애초에 만주에서 흥기한 청은 入關(1644)을 계기로 만주 지역을 떠나 중원 내부로 대거 이주

Seaboard and the kamchatka Peninsula, 1639-1856, Madison, Milwauke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p. 18~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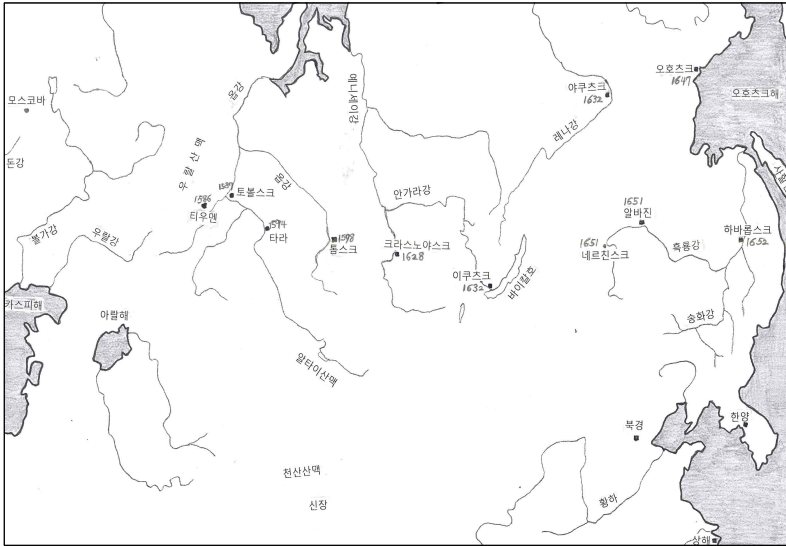
15)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 과정을 여러 일화를 곁들여 상세히 설명한 연구로는 Zenone, 각주 13의 책, pp. 40~99 참조.

16) 러시아인의 극동지역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Gibson, 각주 14의 책 참조.

17) 이 지도는 F. W. Mote, 1999, *Imperial China, 900-180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 872에 있는 지도를 모본으로 삼아, 필자가 약간 각색한 것이다. 이 지도는 계승법, 각주 8의 책, 247쪽에서도 사용한 바 있는데, 필요에 따라 여기서 다시 이용한다.

18) 러시아의 동진과 남진으로 야기된 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Mancall, 각주 11의 책, pp. 20~32; Mote, 각주 17의 책, pp. 868~876 참조. 몽골이 러시아와 청에 순차적으로 분할돼 복속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Joseph S. Sebes, 1977, "The Fragmentation of the Mongols During the Ming Dynasty and Their Step-by-Step Conquest by the Manchus and Russians", *The Canada-Mongolia Review*, v. 3, no. 1, pp. 24~32 참조.

【지도 1】 16~17세기 러시아의 동진 과정과 흑룡강 일대



함에 따라 만주 일대의 인구는 크게 감소했다. 이런 탓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데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청의 주력군은 남방에서 여전히 항거하는 南明(1644~1662)을 제압하는 데 투입되었으므로, 19) 淸軍의 주 화력 또한 대개 남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런 사정은 당시 북만주 방면의 北邊에 대한 북경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남쪽에 비해 크게 미미했음을 잘 보여준다. 당시 청 조정에서는 흑룡강을 따라 만주를 압박하는 세력이 누구인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다. 실제로, 1654년에 청에서 차관 韓巨源을 보내 조선군의 출병을 요구했

19) 청의 중원 정복 및 남방의 몰락 과정에 대해서는 Lynn A. Struve, 1984, *The Southern Ming, 1644-166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Frederic Wakeman, Jr., 1985,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참조.

을 때, 차관조차도 나선(러시아)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²⁰⁾

이렇듯 전투력의 열세와 정보 부족의 결과, 청군은 1652년에 우찰라(烏札拉, Acharsk) 전투에서 패하기에 이르렀다. 이 전투는 청의 寧古塔 방면 주둔군 사령관 하이세(海色)가 이끄는 1,500여 청군이 하바로프(Khabarov)가 지휘하는 500여명 규모의 러시아군 기지를 기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청군은 작전 미숙과 화력의 열세로 인해 오히려 676명의 전사자를 낸 채, 스스로 포위를 풀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이 전투로 인한 러시아군의 손실은 전사 10명과 부상 78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²¹⁾ 이에 청은 재차 출정을 준비하면서 화력의 보강을 위해 조선에 충수병의 파병을 요구했고, 조선이 이에 응함으로써 1차 원정이 이루어졌다. 약 4년 뒤인 1658년에 청은 또 다시 차관을 조선에 보내 2차 출병을 요구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정으로 인한 조치였다.

그렇다면 조선 조정은 두 차례에 걸친 청의 출병 요구에 왜 모두 순응했을까? 다른 말로, 조선의 출병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1654년 봄에 청의 차관이 禮部의 자문을 들고 서울에 와 징병을 요구했을 때, 효종(r. 1649~1659)은 그 자리에서 즉각 파병을 확답했을 뿐 아니라 원정군 사령관의 인선까지 마무리했다.²²⁾ 비변사에서도 기일에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출병 관련 節目을 바로 그날로 완성했다.²³⁾ 이 과정에서 출병 여부를 놓고 조정 신료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개진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전혀 없다. 오히려 조선은 칙서에 순응하여 이미 군사를 국경에 대기시키고 있는데, 청의 通事가 약속된 기일까지 會寧에 도

20) 『효종실록』 12권 5년 2월 2일 계해. “... 上曰 羅禪是何國也 巨源曰 寧古塔之傍有別種 此乃羅禪也 ...”

21) 전투상황과 러시아군의 전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하바로프의 전투 보고서 영문번역 전문은 Zenone, 각주 13의 책, p. 120~121 참조.

22) 『효종실록』 12권 5년 2월 2일 계해.

23) 『비변사등록』 효종 5년 갑오 2월 초2일. “啓曰 羅禪赴征軍兵抄送節目 別單書啓矣 師期頗急 監兵使處 宣傳官下去時 以此分付何如 答曰允 ...”

착하지 않는 바람에 조선군도 기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해량해달라는 주문을 북경에 속히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²⁴⁾ 압도적이었다.

2차 원정의 경우에도, 청의 징병칙서와 예부의 자문을 받자마자 효종은 그 자리에서 출병을 결정했고,²⁵⁾ 비변사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절목을 바로 다음 날 완성하는 민첩성을 보였다.²⁶⁾ 이 2차 원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일본식 조총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는 퇴근하지 말도록 비변사 유사당상에게 특명을 내리는 등²⁷⁾ 화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던 효종은 청의 2차 징병요구를 맞아 매우 적극적으로 응한 것이다. 이때도 조선 조정이 출병 여부를 놓고 논의한 흔적은 사료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차 원정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식량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민하는 정도였다. 1차 원정 때 조선군은 영고탐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열흘치 군량만 손수 준비했고, 영고탐에 도착한 후 귀환할 때까지 모든 군량은 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²⁸⁾ 그런데 이번에는 출발 때부터 이미 석달치 군량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원정 일정이 예정보다 길어짐에 따라 계속해서 추가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⁹⁾ 그렇지만 이런 군량 문제가 출병 반대 논의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식량 보급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24) 『효종실록』 12권 5년 2월 5일 병인; 『비변사등록』 효종 5년 갑오 3월 13일.

25) 『효종실록』 20권 9년 3월 3일 경자.

26) 『騰錄類抄』(奎15080) 교린 3, 효종 9년 3월 4일 무술.

27) 『비변사등록』 효종 8년 경유 3월 초8일.

28) 『通文館志』 9:23左, 紀年, 효종대왕 5년 갑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 而近緣北路凶歉 道途窮遠 厘辨十日糧以送 等情咨復 回咨內 奉旨 着戶部發給寧古塔官糧食用”

29) 『통문관지』 9:26右, 효종대왕 5년 갑오. “差北虜候申瀏 爲領將 率哨官二員 … 帶三月糧 往待境上 專差行司直李芬 咨報禮部 回咨內 軍期遲速 豈能遽定 將兵餉計 至回日 陸續接運” 실제로 조선군은 영고탐으로 귀환한 후 군량이 떨어지자 청군으로부터 식량을 꾸어 조달하다가 본국으로부터 추가 군량을 지급받아 몇 배로 갖기까지 할 정도였다.(『북정록』 7월 14일, 24일, 8월 초2일)

도, 신료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어려움 때문에 출병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재야 양반사회의 출병 반대 상소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효종과 신료들은 청의 파병 요구에 단 한 번의 거절 의사 표명도 없이 왜 이처럼 적극적으로 응했을까?

조선의 출병 동기에 대한 기존 설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효종의 北伐 기도를 견제하기 위한 징병임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이 청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즉각 출병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설명이³⁰⁾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다. 이 밖에도 ② 삼전도 和約(1637) 중에 征明을 위해 청이 징병하면 조선은 응한다는 조항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³¹⁾ 그런가 하면, ③ 청이 주도하는 수직적 국제질서 하에서 청의 징병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아예 체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³²⁾ 등이 개설 수준으로 소개된 바 있다.

①의 경우는 당시 청이 조선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인사문제에까지 개입하던 정황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사료적 뒷받침이 없이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라는 데 약점이 있다. 나선정벌을 위한 징병의 동기가 정녕 조선의 군비 확충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면, 고작 1, 2백 명 규모의 병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은 효종이 왜구를 구실로 성을 쌓는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바로 특별 사신을 보내 직접 조사까지 한 바 있다.³³⁾ 그뿐 아니라, 조선의 입장에서 보아도 북벌의 타도 대상은 청인데, 단지 북벌 준비를 숨기기 위해 효종이 전격적으로 파병을 결정하고 온 조정이 적극 따랐다는 설명은 석연치 않다. 명분이 목

30) 稻葉岩吉, 각주 2의 논문(상), 6~7쪽; 申基碩, 각주 5의 책, 234~236쪽; 崔韶子, 각주 3의 논문, 405~406쪽.

31) 朴泰根, 각주 5의 논문, 242쪽; 반윤홍, 각주 4의 논문, 131쪽.

32) 朴泰根, 각주 5의 논문, 242쪽 및 252쪽.

33) 『효종실록』 5권 1년 8월 27일 무신.

습보다 중요한 유교사회에서, 즉 과정(동기)이 결과보다 더 중요시되는 명분론적 유교사회인 조선에서 북벌운동의 핵심 명분을 저버리고 효종과 신료들이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더욱이 효종 대의 북벌 움직임은 삼전도항복(1637) 이후 위기에 처한 국내 질서와 정치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대내적 성격이 강했는데,³⁴⁾ 다른 말로 북벌론 자체가 곧 정치적 명분이었는데, 그 명분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논리적,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의 경우에는 출병의 법적 근거로 일견 타당해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나선정벌은 명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상의 문제뿐 아니라, 정녕 이 약조 때문에 출병한 것이라면 왜 이전에는 征明戰 참여에 그토록 미온적이었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³⁵⁾ 또한, 당시 조정 신료들이 삼전도 약조의 조문 하나하나에 충실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다. 주지하듯이, 파병, 貢女, 여진인 쇄환 등 어느 것 하나 조선 조정은 청의 요구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③의 경우가 당시 상황에 가장 가까운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효종 대는 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다. 조정의 인사문제마저 청이 좌지우지하는 등, 효종 대에 청은

34) 대부분의 학자들은 효종의 북벌 의지에 대해서 그 순수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8년 동안이나 瀋陽과 北京에 인질로 있으면서 중군 경험도 있는 효종이 과연 북벌이 정말 가능하다고 순진하게 믿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청에 우호적이던 형 昭顯世子가 아버지 인조(r. 1623~1649)의 미움을 받다가 끝내 요절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또 왕위계승문제로 혼역을 치른 바 있는 효종이야말로 국내정세의 흐름과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읽고 그 타개책으로 북벌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계승범, 2012, 「조선의 18세기와 탈중화 문제」, 『역사학보』 213, 73~75쪽 참조.

35) 삼전도 항복 이후 조선은 명을 치기 위한 청의 정병요구로 목살을 앓았다. 이른바 1차 瀋獄(1639~1640)도 바로 조선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발생했음은 이를 나워도 없다. 청의 정병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조선의 태도에 대한 분석은 계승범, 각주 8의 책, 222~238쪽에 상세하다.

마음만 먹으면 조선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청이 징병을 요구해왔을 때 조선 조정이 취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특히, 청에서 요구한 조선군의 규모가 1, 2백 명 정도로 소규모였던 점도 잠재적 출병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당시 조선 조정이 이 문제를 조선의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한 점도 꼽을 수 있다. 나선(러시아)의 세력이 계속 커질 경우, 그것이 조선의 북변인 두만강 일대에 직접 영향을 미쳐 장차 큰 우환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효종과 신료들이 공감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청의 1차 파병 요구 당시 조선 조정은 나선(러시아)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른 채 그저 寧古塔 근처에 사는 별종으로 알고 출정했는데,³⁶⁾ 이전부터 조정 신료들은 영고담과 厚春 일대 오랑캐들의 세력 확대가 필연적으로 조선의 국경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1차 원정(1654)이 있기 1년 전에 이미 예조판서 李厚源(1598~1660)은 후춘 부락이 강성해지면 조선의 우환이 될 것이라 우려한 바 있다.³⁷⁾ 閔鼎重(1628~1692)도 청의 영고담 출병 칙서가 서울에 도착할 즈음에 宋浚吉(1606~1672)에게 서신을 보내 조선의 북변과 인접한 영고담 부락이 날로 강성해져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³⁸⁾ 따라서 나선(러시아)

36) 『효종실록』 12권 5년 2월 2일 계해.

37) 『효종실록』 3년 8월 13일 임자. “...臣曾忝咸鏡監司 備知北路之事矣 厚春部落日益熾盛 異時北京微弱 不能制伏 則其爲我國患必矣...”

38) 『老峰先生文集』 6:4ab “...然虜情回測 不可推知 而寧古乃吾關北相接處 部落最盛 識者慮之久矣 實恐國家之禍...” 『韓國歷代文集叢書』 421-422권, (경인문화사, 1993), 474-481쪽. 한편, 나선정벌과 관련해 당시 조선의 일부 신료들이 갖고 있던 북변에 대한 우려는 이후에 이른바 ‘영고담회귀설’로 17세기 후반을 거쳐 18세기까지도 이어졌다. 영고담회귀설에 대해서는 허태용, 2009, 『조선 후기 중화론과 역사 인식』, 아카넷, 152~161쪽; 배우성, 2010, 「만주에 관한 지식과 조선후기사회」, 『역사학보』 208 참조.

을 영고탑 일대에 출몰하는 오랑캐의 별종으로 이해하던 조선 조정으로서는 나선 정벌에 동참하라는 청의 요구를 굳이 꺼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청의 비위도 거스르지 않으면서 조선의 북변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에 따른 출병 결정이었던 것이다.³⁹⁾

II. 1차 원정의 추이와 그 결과

청의 첫 파병 요구는 1654년(효종 5년) 2월에 있었다. 청의 차관 韓巨源이 가져온 예부의 자문에서 청은 조선 銃手兵 100명을 3월 10일까지 영고탑으로 들여보낼 것을 요구했다.⁴⁰⁾ 이에 조선 조정은 즉각 출정 준비에 들어가 北虞候 邊崱을 사령관으로 삼아, 領將 1인, 哨官 1인, 영장의 군관 및 通事 등 22인, 초관의 군관 8인, 포수 100인, 火兵 20인 등 모두 152명 규모의 원정군을 구성했다. 또한 영고탑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열흘 분량의 식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節目을 완성했다.⁴¹⁾ 함경도 지역에서 모집한 병력은 會寧에서 대기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런데 청에서 오기로 한 衙門通事의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선군은 국경을 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3월 26일에 마침내 회령의 군진을 출발해 그날로 두만강을 건넜다.⁴²⁾

조선군은 8일간의 행군 끝에 영고탑에 도착해, 영고탑 방면에 주둔하고 있던 淸軍에 합류했다. 거기서부터 청군의 지휘를 받으며 100리쯤 행군하여 忽可江(牡丹江)에 이르렀다. 거기서부터는 미리 준비된 선박에 승

39) 조선의 출병동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계승범, 각주 8의 책, 255~259쪽 참조.

40) 『효종실록』 12권 5년 2월 2일 계해.

41) 『비변사등록』 효종 5년 갑오 2월 초2일.

42) 『비변사등록』 효종 5년 갑오 4월 초3일.

선해 강을 따라 하류를 향해 북상했다. 선단의 규모는 17인승 정도의 중형 선박이 20척, 4~5인이 승선할 정도 크기의 소형 배가 140척이었다.⁴³⁾ 이를 통해 조청연합군의⁴⁴⁾ 규모를 추산해 보면, 중형 선박에 승선한 인원은 약 340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소형 배에 모두 5명씩 승선했다고 가정하면, 정확히 700명이 된다. 그러나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면, 연합군의 병력은 대략 1,000명 정도였을 것 같다. 이 가운데 조선군이 152명이었으니, 영고탑에서 차출되어 이 원정에 참여한 청군은 대략 850명 규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군이 포함된 1,000여명 규모의 연합군은 이렇게 영고탑을 떠난 지 14일 만에 목단강(會通江)이 송화강(後通江)으로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曰哈이라는 곳에 당도했다. 왈합은 曰可로도 표기되는데, 만주국(1931~1945) 당시에는 목단강 중류 이북 지역, 즉 목단강 중하류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었지만,⁴⁵⁾ 보고서의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변급이 말한 왈합은 넓은 지역이 아니라 목단강이 송화강으로 합류하는 바로 그 지점, 곧 현재 黑龍江省 依蘭縣의 중심부로 비정할 수 있다. 변급의 보고에 따르면, 이 장소는 영고탑에서 강을 따라 약 2,400여리쯤 떨어진 지점이었다. 또한 왈합 병사 300명이 변급의 보고서에 언급된 점으로 보아, 왈합의 토착인 300명 정도가 현지에서 조청연합군에 추가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바로 이 왈합에서 청·조선·왈합 연합군 선단은 러시아군과 맞닥뜨렸는데, 변급은 러시아군 선단의 규모를 3백 석을 실을 만한 큰 배 13척과

43) 『효종실록』 14권 6년 4월 23일 정축.

44) 이 부대를 ‘조청연합군’으로 부르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조청연합군 내지는 연합군으로 부르기로 한다.

45) 稻葉岩吉, 각주 2의 논문, 15, 26쪽.

46) 이 문단 내용 중에서 사실 부분은 변급의 보고서(『효종실록』 14권 6년 4월 23일 정축)를 참고했고, 추정은 필자의 분석에 의거했다.

倭船처럼 생긴 작은 배 26척 등 모두 39척으로, 승선 인원은 4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男女로 표현한(47) 점으로 볼 때, 그 400명 가운데에는 러시아군에 인질로 잡힌 흑룡강 연안의 토착민들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시 러시아인들이 흑룡강을 따라 오르내리며 토착민들로부터 모피를 탈취하는 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토착민을 먼저 인질로 잡은 후에 협상을 벌여 몸값으로 흑담비(соболь; 紫貂, 黑貂, 또는 林貂) 모피를 받아내는 일이었던 점을(48)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한편 당시 스테파노프는 320여명의 러시아(대개 까자크) 병력을 이끌고 송화강을 거슬러 남진하던 중이었는데, 이는 흑룡강과 송화강 일대의 한 토착민인 듀체르族(49) 확실하게 제압하고 식량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들은 흑룡강을 따라 오르다가 송화강으로 접어들어 거슬러南進한 지 사흘 정도 지나서 ‘중국군’과(50) 맞닥뜨렸다. 이때 스테파노프는

47) 『효종실록』 14권 6년 4월 23일 정축. “… 賊艇男女 不滿四百 所持惟火器耳 其容貌皆類蠻賊 衣皆黃錦 …”

48) *Дополнения к Актам историческим* [역사 법령집 증보판],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Эдуард Прац, 1846-1872, том 3, #122(1654. 08.), стр. 524. 이후 ДАИ로 약칭함. 이 자료의 중국어 번역본은 『歷史文獻補編 17世紀中俄關係文件選譯』(北京: 商務印書館, 1989), 第17件 1654년 8월초, 88~90쪽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세 러시아어로 쓰인 이 자료의 번역은 전적으로 이종훈 선생(서강대)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이 자료의 온라인 정보 등 자료 관련 정보 일체를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선생은 이번 연구를 위해 필자가 송화강 유역과 依蘭縣을 답사할 때 동행해, 송화강 유역에 산재한 러시아 관련 유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셨다. 이 답사에는 윤휘택 선생(한경대)도 동행했는데, 만주 일대 지리 관련 상세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답사 안내를 시종도록 도맡아 주셨다. 윤 선생이 아니었다면, 필자의 답사는 불가능했다. 이에 이 지면을 통해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49) 이종훈 선생이 전해준 러시아 자료의 온라인 버전 여주에 따르면, 듀체르(Дючеры, 久切爾人)족은 17세기 흑룡강(아무르江) 중류 유역 중에서도 특히 한 지류인 제야江 합류점에서 우수리江 합류점 사이의 흑룡강 구간 일대에 살던 족속으로 통구스 족의 한 갈래라는 설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발음으로 보아, 필자 생각에는 혹시 여진(Jurchen, 珠璣)의 異音이거나 유사한 여진 종족 또는 몽골계 종족의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진 1】 依蘭縣의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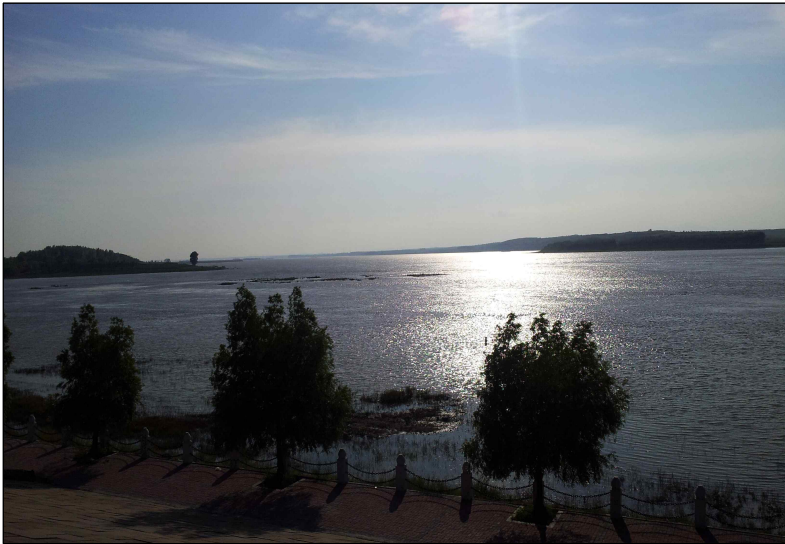
2012년 8월에 이 연구를 위해 필자는 1차 원정의 전투지가 위치한 黑龍江省 依蘭縣을 방문한 바 있다. 의란현에서는 중국 사료를 망라해서 의란현 관련 자료를 古代부터 모두 뽑아 縣史를 작성해 박물관에 체계적으로 전시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의란현 내에서 벌어진 이 1차 원정 전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흑룡강 일대에서 1660년대 이후에 벌어진 청과 러시아의 다른 무력 충돌을 일부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얼빈에 있는 흑룡강성 박물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는 결국 나선정벌로 불리는 두 차례의 전투에 대해서 중국 측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인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9)를 참조.

50) 이종훈 선생에 따르면, 원문에서는 중국을 가리키는 러시아어 키타이스키(китайский) 대신에 天子의 나라를 뜻하는 보호도이스키(Богдойский)라는 형용사가 일관되게 사용되었는데, 19세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러시아에서는 중국을 가리켜 ‘보호도이스키’라고 표기하는 것이 대세였다고 한다. 어쨌든, 당시 스테파노프는 곧 교전에 들어갈 적군이 多民族 연합군인지 모른 채, 그저 중국군으로 파악했음이 분명하다.

17세기 중반 나선정벌의 추이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연합군의 부대들은 각기 서로 다른 색의 군기를 걸었으며, 전투를 위한 편성이 잘 되어 있는 병단으로 파악했다. 또한 대포와 화승총 등 갖가지 무기로 정연하게 편성되어 있어, 교전을 벌이기 힘든 상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⁵¹⁾

【사진 2】 목단강(왼쪽)이 송화강(중앙·오른쪽)에 합류하는 지점



목단강을 따라 내려온 연합군과 송화강을 타고 올라온 러시아군은 이 사진의 중앙 부분에서 江上戰을 전개했다. 왼쪽에 보이는 언덕은 육상전이 전개된 ‘高地’ 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 일대는 모두 평지뿐이며, 이 언덕이 유일한 고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덕의 강가는 수심이 깊어 상륙과 승선을 하기에 적당하다. 다른 강안은 대개 수심이 낮아 배를 가까이 대기조차 어렵다. 이 사진은 의란현 박물관 뒤편에 조성된 공원의 강안에서 필자가 찍었다.

51) ДАИ, том 3, #122(1654. 08.), стр. 525.

청군 사령관은 변급을 선봉으로 삼아 공격하려 했는데, 변급은 아군의 배가 적선에 비해 크기가 작아 불리한 점을 지적했다. 변급의 건의를 수용한 淸將은 청군 300명과 활합 병사 300명을 강안에서 지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柳棚을 설치하게 했으며, 총수병으로 구성된 조선군은 그 방책 뒤에서 사격을 가하도록 조치했다.⁵²⁾ 이런 상태에서 연합군의 선제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배에 승선한 채 총격과 포격을 주고받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스테파노프도 휘하의 까자크 병사들을 투입해 포격으로 맞섰다. 일종의 江上戰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내 연합군은 모두 하선해 물으로 올라 언덕 위의 방책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응전했다.⁵³⁾

【사진 3】 1차 전투 중 육상총격전이 전개된 언덕의 근경



52) 『효종실록』 14권 6년 4월 23일 정축. “... 淸將欲以臣爲前鋒 臣謂之曰 豈可乘此者皮艇 以禦彼之巨艦乎 淸將然之 遂令曰哈三百及淸兵三百 擇占江邊地勢最高處結陣 因以柳棚 列置崖上 令我軍依蔽而放砲 ...”

53) ДАИ, том 3, #122(1654. 08.), стр. 525.

이에 사기가 오른 러시아군도 상륙해서 연합군 진지를 빼앗으려 돌격을 감행했다. 첫 교전인 수상전은 러시아군의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바로 陸戰으로 바뀌어 전투가 계속된 것이다. 이에 방책 뒤에 포진해 있던 연합군 중에서도 특히 조선 총수병은 방책에 의지해 사격을 가했다.⁵⁴⁾ 총격에 맞아 부상자가 발생하자, 스테파노프는 더 이상의 교전에 어려움을 느끼고 병사들을 수습해 후퇴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많은 부상자를 내고 물러나 다시 승선했다가, 탄약과 식량의 부족을 느껴 하류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비록 연합군의 선박에는 타격을 입혔으나, 인명의 손실에 더해 폭약과 탄약의 부족으로 인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⁵⁵⁾ 이 육상 총격전에서는 연합군이 완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스테파노프도 돌격 과정에서 많은 대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서에 적었으며, 변급도 귀국 후에 총탄에 맞아 죽은 적군이 심히 많았다고 보고했고,⁵⁶⁾ 실제로 러시아군이 먼저 싸움을 포기하고 후퇴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이 배를 타고 송화강 하류 쪽으로 퇴각하자, 연합군도 다시 승선하여 나흘 동안 추격전을 전개했다.⁵⁷⁾ 러시아군은 송화강이 흑룡강으로 접어드는 합류지점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응전하려 했으나, 화약뿐

54) 『효종실록』 14권 6년 4월 23일 정축.

55) ДИАИ, том 3, #122(1654. 08.), стр. 525; 『역사문헌보편』 제17권, 1654년 8월초, 90쪽. 『同文彙考』 원편 권76, 軍務. 順治 11년 7월 (모)일.

56) 『同文彙考』, 原編 권76, 軍務. 順治 11년 7월 (모)일. “... 二十八日 與賊遇於江中 終日接戰 賊中丸死者甚多...” 이 자료에 따르면, 조선군이 수상[江上]전에서 러시아 병사를 많이 쓰러뜨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상세히 살폈듯이, 첫 수상전에서는 연합군이 패퇴했으며, 조선군은 수상전에 참여하지 않은 채 언덕 위 방책에서 사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변급은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 또는 어전 보고 내용을 받아 적은 史官은 왜 이런 문장을 적었을까? 아마도 변급은 그날의 전투를 수상포격전과 육상총격전을 한데 묶어 그 결과만 보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전투의 세부적인 상황은 생략한 채 러시아군 다수가 (조선군의) 총격을 받아 쓰러졌다는 결과만 부각해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終日接戰’이라는 말을 앞에 먼저 쓰고 결과를 보고한 점으로 보아 더욱 그렇다.

57) 『동문회고』 원편 권76, 군무. 순치 11년 7월 (모)일; ДИАИ, том 3, #122, стр. 525.

아니라 식량도 부족하던 차에 마침 동풍이 불자 뜻을 올리고 흑룡강 상류 쪽으로 퇴각해 사라졌다.⁵⁸⁾

도중에 34명의 병력을 충원 받은 스테파노프는 흑룡강 상류의 쿠마스크(Kumarsk)로 이동하여 요새의 방비를 강화했다.⁵⁹⁾ 한편 연합군은 송화강과 흑룡강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큰 섬에 토성을 쌓아 방비책을 세운 후에 주력부대는 곧 철군하여, 6월 13일에 영고탑으로 귀환했다.⁶⁰⁾ 주력부대를 따라 남하한 조선군도 영고탑을 거쳐 84일간의 원정을 마치고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모두 회령으로 귀환했다.⁶¹⁾

이렇듯 1654년 1차 원정 시의 전투는 하루 동안 강상과 육상에서 연이어 벌어졌는데, 송화강을 따라 남하하던 러시아 세력을 일단 막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연합군의 결정적 승리는 아니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폈듯이 육상충격전에서 러시아군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변급의 보고서 및 북경에 보낸 조선의 자문에서 적의 사상자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스테파노프의 보고서에도 부상자가 있다고 했을 뿐 대략의 숫자도 제시하지 않은 점, 러시아군이 흑룡강 상류로 퇴각하는 도중에 30여명 정도 충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스테파노프가 상륙돌격작전 중에 일부 병력의 손실을 입었을지라도 그것이 러시아군의 추후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조선군의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교전은 치열한 접근전이 아니라 원거리 총격전의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연합군은 러시아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한 채, 그들의 남진을 막고 흑룡강 일

58) 『효종실록』 14권 6년 4월 23일 정축 참조.

59) ДИАИ, том 3, #122(1654. 08.), стр. 525; 『역사문헌보편』 제17권 1654년 8월초, 91쪽.

60) 『동문회고』 원편 권76, 군무. 순치 11년 7월 (모)일.

61) 『효종실록』 12권 5년 7월 2일 기축.

대로 물리쳤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실제로, 스테파노프가 이끄는 러시아군은 비록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흑룡강 일대를 누비며 세력을 유지했다. 이에 러시아군에게 타격을 가하고 그들의 거점을 점령하기 위해, 1655년 봄에 청군은 흑룡강 상류에 위치한 스테파노프의 쿠마스크(Kumarsk) 요새를 포위하고 대규모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면서 식량 문제에 봉착하자, 스스로 포위망을 풀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청은 작전을 바꿔, 흑룡강 연안의 토착 부락민들을 강제로 남쪽으로 이주시키는 일종의 청야 작전으로 러시아군을 압박하려 했다.⁶²⁾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흑룡강 일대를 헤집고 다니는 러시아 세력으로 인해 청이 느끼는 위기위식이 여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청이 또 다른 원정을 준비하면서 조선의 충수병을 재차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다.

Ⅲ. 2차 원정의 추이와 그 결과

1658년 2월에 청은 조선에 두 번째 징병칙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鳥銃手 200명의 파견과 조선군의 군량도 스스로 준비해 5월초에 영고탑에 도착할 것을 요구했다.⁶³⁾ 이에 효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칙사를 맞이한 바로 그 자리에서 파병을 즉각 결정했으며, 모든 관련 절목도 바로 다음날

62) 1654년 전투 이후 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알력에 대해서는 Mancall, 각주 11의 책, pp. 27~28 참조. 참고로, 順治帝(r. 1643~1662) 연간에 있었던 청·러 충돌에 대한 청나라 측 사료는 매우 빈약하다.

63) 『승정원일기』 효종 9년 2월 19일 병술. “皇帝勅諭朝鮮國王 今羅禪犯我邊境 擾害生民 應行征勦 茲發滿兵前往 需用善使鳥創手二百名 王卽簡發 茲將一切應用之物 全行備辦 令的當官員統領 限于五月初間 送至寧固塔 特諭”

완성했다.⁶⁴⁾ 절목에 따르면, 이때 조선 조정은 惠山鎭僉使 申澗(1619~1680)를 領兵將으로 삼아 초관 2명, 영병장의 수행원으로 군관과 통사를 포함해 22명, 두 초관의 수행원 도합 16명, 포수 200명, 火兵 20명 등 총 261명으로 정했다. 또한 3개월 정도의 군량 등 모든 군수품을 조선이 부담하고 그 운송도 영고답까지는 조선이 책임지도록 정했는데,⁶⁵⁾ 이는 칙서의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결과였다.

당시 현지에 있던 첨사 신유는 조정의 지시에 따라 4월 초에 병력을 소집했다. 砲手는 해산을 비롯해서 鏡城와 穩城 등 도내 9개 관내에서 각각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고르게 차출해, 도합 정확히 200명을 편성했다. 여기에 화약을 다루는 火兵 20명과 부관과 통사 및 馬夫 등을 합해 총 265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하고 대기상태에 들어갔다. 청의 통사가 이로부터 거의 한 달이 가까운 4월 30일에 회령에 도착했으니,⁶⁶⁾ 조선군은 소집 이후에도 거의 한 달가량 대기한 셈이다.

신유가 이끄는 조선 원정군은 5월 2일에 출발해 두만강을 건넜고, 9일에 영고답에 당도했다. 1차 원정 때는 회령을 출발해서 8일 만에 영고답에 당도했는데, 이번에는 하루나 빨리 당도한 것이다. 군 병력이 8일 거리

64) 『효종실록』 20권 9년 3월 3일 경자; 『승정원일기』 효종 9년 3월 4일 신축. “(備邊司) 又啓曰 寧固塔入送軍兵糧餉藥丸等舉行節目磨鍊 別單書入 以此分付監兵使處 而標信兵符 令政院依例稟旨 發遣宣傳官 何如 答曰 依啓”

65) 『臚錄類抄』 交隣 3, 효종 9년 무술 3월 초4일. 1658년 2차 원정시의 절목은 『비변사등록』의 해당 연도 부분이 결락 상태라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규장각도서관 No. 15080의 『등록유초』에 해당 절목이 있는 것을 반윤홍이 발견하여 1990년에 학계에 소개하였다.(반윤홍, 각주 4의 논문) 이 절목의 전문은 반윤홍의 논문에도 실려 있다.

66) 『北征錄』 처음부터 5월 30일까지 내용 참조. 『북정록』은 2차 원정 조선군 사령관 신유가 작성한 陣中日記인데, 원문과 역주가 박태근, 각주 4의 책에 실려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것을 참고했다. 한편, 『북정록』은 券 표시가 없는 짧은 글이므로, 인용하는 해당 면수를 정확히 인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날짜로 인용한다. 또한, 본문에서 날짜를 밝히고 짧게 인용한 경우에는 일일이 각주를 달지 않는다.

를 7일에 갔다면, 이는 매우 촉급하게 이동했다는 뜻인데, 실제로 청의 통사는 자기가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 늦어진 일자를 벌충하기 위해 조선군을 심하게 다텔했다. 이에 조선군은 후미의 수송부대와 거의 한나절 거리가량 앞서서 밤낮으로 강행군을 해야 했다. 영고탑 성에 도착했을 때 이번 원정의 총사령관은⁶⁷⁾ 이미 부대를 거느리고 목단강가로 떠난 상태였다.⁶⁸⁾

영고탑에서 하루를 묵은 조선군은 다음날 10일에 목단강가에서 청의 본군에 합류해 청군의 지휘 하에 들어갔다. 11일에는 조선군 포수 200명이 각기 8분대로 나뉘어 청군에 분산 배치되었다. 1차 원정 때 조선군의 배치 상황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이 2차 때의 경우로 미루어 볼 때 그때도 부분적으로 분산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619년에 명의 요구에 따라 출병한 姜弘立(1560~1627) 휘하의 조선군 12,000여명이 명軍에 분산 배치되지 않고 독자적인 부대로 합류한 것과 비교할 때, 청에 대한 조선군의 위상이 이때 훨씬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⁶⁹⁾

12일에 연합군은 목단강을 따라 하류로 운항을 시작해서 5월 15일에 송화강과 합류하는 曰可(曰哈)지역에 도달했다. 거기서 송화강 상류에서 건조한 대형 선박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보름 정도 체류했다. 이 사이에 연합군은 현지인 정보망을 통해 러시아군 선단이 본대와 선발대로 나뉘어 흑룡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는 것과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약 5일 정도 운항할 거리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또한 상류에서 러시아 선단이 내

67) 이 자의 이름은 沙爾虎達이다. 박태근의 역주 참조. 『북정록』에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장수가 列伐 출신이라 기록했는데, 열벌은 송화강이 흑룡강에 합류하기 직전의 강안지역이다. 이는 申澗가 연합군 선단이 이곳을 지날 때 장수가 이곳 출신이라 기록했기에 쉽게 알 수 있다. 『북정록』 6월 9일 기사 참조.

68) 『북정록』 5월 2일~5월 9일.

69) 이런 비교에 대해서는 계승범, 2012, 「임진왜란 중 조명관계의 실상과 조공책관계의 본질」, 『한국사학사학보』 26 참조.

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북경으로부터도 입수했다. 그동안 연합군은 소를 잡아 잔치를 열기도 하고 사격연습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당시 청군에도 북경과 영고탑에서 차출된 포수 수백 명이 있었으나, 申澗가 보기에는 사격시범에 나선 영고탑 출신 淸兵 포수 100명 가운데 과녁을 맞힌 자가 약간 명일 정도로 사격에 서툴렀다. 이에, 청군의 요청에 따라 조선 포수가 左哨와 右哨로 나뉘어 각각 3발씩 쏘는데, 좌초에서 한 발 이상 맞힌 자는 67명, 우초에서는 56명이었다.⁷⁰⁾ 청군과 대비해서 조선군이 사격시범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좌초와 우초에 각각 100명씩, 즉 조선군 200명 전원이 시범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100명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조선군 포수의 명중률이 청군 포수보다 월등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청군은 송화강 상류로부터 선박이 도착하지 않은 탓에 화약도 부족해, 조선군이 화약을 꾸어줄 정도였다.⁷¹⁾

6월 2일에 선박이 도착하자, 부대를 점호하고 필요에 따라 재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출정 준비에 들어갔다. 이때 조선군 265명 중에서 부상과 신병 등으로 출전이 어려운 포수 2명과 선박 공간이 부족해 승선하지 못한 군속 3명 등 총 5명은 본국으로 돌려보냈다.⁷²⁾ 따라서 실제 원정에 참여한 조선군은 모두 260명이었다.

준비를 마친 연합군은 5일에 曰可를 출발해, 송화강을 따라 흑룡강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연합군 선단의 규모는 지휘선 4척, 중대형 선박 36척, 중소형 선박 12척 등 모두 52척이었다. 또한 戰船에 배치된 각종 火砲는 50문이었고, 그것을 다루는 포수는 100명이었다.⁷³⁾ 이에 기초해 이전 1차 원정 때와 비교해 미루어 보면, 이때 연합군의 병력규모는 조선

70) 『북정록』 5월 20일, 21일.

71) 『북정록』 5월 24일.

72) 『북정록』 6월 초3일.

73) 『북정록』 6월 초2일. 이들은 북경에서 온 포수로 보인다. 왜냐하면 조선군과 영고탑군 포수는 모두 개인화기로 무장한 소총수였기 때문이다.

군 260명을 포함해서 적어도 2,000명을 넘어, 대략 약 2,5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합군 선단은 나흘 뒤인 9일에는 흑룡강 합류 지점 조금 못 미친 列伐에 도달해, 흑룡강 진입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스테파노프가 이끄는 540여 러시아(까자크)군은 1657년 겨울을 흑룡강 하류 쿠민스키(Kuminsky) 요새에서 지내고, 1658년 봄이 되자 매년 그랬듯이 현지인들로부터 모피를 징수하고 흑룡강 상류의 러시아 행정관을 만나기 위해 흑룡강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다. 도중에 현지인들을 통해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첩보를 접한 스테파노프는 180명의 대원을 척후 선발대로 삼아 앞서 올려 보내고 자신은 본대를 이끌었다.⁷⁴⁾

연합군도 러시아군의 이런 움직임을 다양한 첩보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연합군 지휘관들은 흑룡강 진입을 앞두고 작전회의를 열었다. 대부분의 장수들은 선불리 진입했다가 만약 상류에서 내려오는 적과 하류에서 올라오는 적의 협공을 당할지도 모르니 진입하지 말고 사태를 관망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총사령관의 단독 결정에

74) РГАДА, Сибирский приказ фонд, стлб. 124, лл. 196-195. 이는 러시아연방 모스크바 볼샤야 피고롭스카야街 17번지(ул. Большая Пироговская, д. 17)에 소재한 ‘國立러시아古代法令 보관소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древних актов (РГАДА)’에 소장된 ‘시베리아省 Сибирский приказ’ 관련 문서집성(фонд) 아래 분류된 문서철124의 196~195쪽 부분을 말한다. (차후 위와 같이 略記함). 한편, 문서철 124 자료 전체는 196~192쪽에 걸쳐 있다. 문서 내용 전개가 右에서 左의 逆順으로 표기돼 있다. 同 문서는 청군과의 교전에서 생존한 러시아(까자크)군인 페트리로프스키(A. Ф. Петриловский) 및 그 대원들을 상대로 시베리아省 주관 하에 그들의 아무르(흑룡강) 지역 출정에 관해 작성된 심문조서로서 기록일자는 1660년 9월 4일이다. 아울러, 同 자료는 下記한 ‘시베리아 역사 기록물 ПАМЯТНИКИ СИБИРСКОЙ ИСТОРИИ’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原 자료의 페이지 수를 표기하고 있다. 필자가 참고한 자료 역시 아래 웹사이트 자료임을 밝힌다. http://sibrelc.ucoz.ru/publ/akty_istoricheskie_1660_1669gg/akty_istoricheskie_1660g/1660_09_04/92-1-0-481 이 러시아 자료에 대한 일체의 정보 또한 이종훈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따라 결국 흑룡강으로 진입했다.⁷⁵⁾ 이어 러시아군의 본대를 목표로 삼아 곧바로 20여리 하류로 내려가다가 강중에 닻을 내리고 있던 러시아군 선단을 발견했다. 당시 스테파노프의 본대는 대형선박 11척 규모였는데, 연합군 선단을 보자 즉시 10여리쯤 내려가 강안으로 붙어서며 포진했다.

연합군이 계속 접근하여 피차 사정거리에 들자 포격전과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연합군은 前衛과 中營은 물론이고 後營까지 모두 합세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수적으로 열세인 러시아군은 총탄과 포탄을 이기지 못하고 배 안으로 숨거나 강에 뛰어들어 물으로 피하는 등 조직적인 응전을 하지 못했다. 이에 연합군은 배를 더욱 붙여 포수들이 직접 적선에 올라 불을 지르려 했다. 그러나 총사령관이 적선을 불태우지 말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다시 本船으로 돌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물에 올라 草木에 숨어 반격을 가한 러시아군의 총탄에 약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적선을 불태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쪽 선박이 지나치게 접근해 있다 보니, 배 안으로 숨었던 러시아군과 근접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연합군에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황이 다급해지자, 연합군은 작전을 바꿔 火箭으로 공격해 러시아군 선박 7척을 불태웠다.

또한 이 전투 와중에, 明川에서 차출된 포수 16인이 타고 있던 배의 병사들이 모두 적선으로 쳐들어가는 바람에 배가 비게 되자, 물으로 도주했던 러시아군 40여명이 이 배를 탈취했고, 물에 남은 다른 러시아군이 배를 밧줄로 끌어 상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신유 자신이 포함된 後營의 선박 여러 척이 추격했고, 신유가 승선한 배가 선두에 섰다. 연합군의 추격대가 근접하자 물에서 배를 끌던 러시아군은 숲으로 도주했고,

75) 『북정록』 6월 27일. “... 諸將皆以爲 若過黑龍之後 大軍自上流下來遮絕 則上下受賊 進退維谷 不若留防黑龍江口 觀勢進退之爲萬全 獨大將以爲 不可以此有所沮止 但當前進 剿滅現在之賊 上下受賊 非所慮也 翌日行過黑龍...” 기록된 날짜가 전투가 모두 끝난 6월 27일인 이유는 신유가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적었기 때문이다.

淸의 甲兵이 배에 올라 러시아군 병사들을 살해했다.

이런 치열한 전투가 지속되는 사이에 날이 저물어 더 이상의 전투가 어려워지자, 아직 불타지 않은 러시아 선박 4척을 연합군이 느슨하게 포위한 형세로 전투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러시아군은 야음을 틈타 모두 한 척으로 옮겨 타고는 그 배를 몰고 하류로 도주했는데, 밤이 깊은 탓에 연합군은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이날 전투에 대해 신유는 청군 사령관이 적선에 실려 있을 재화를 탐내 불을 지르지 못하게 한 탓에, 발생하지 않아도 좋았을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분개하는 기록을 남겼다. 즉, 애초에 적선을 모조리 불태웠으면, 연합군은 별다른 사상자 없이 적을 궤멸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⁷⁶⁾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지휘관 스테파노프를 포함해 220명이 전사했고, 무사히 하류로 도주한 배 한 척에 승선한 인원은 95명이었으며, 나머지 살아남은 병사들은 물에 올라 뿔뿔이 흩어졌다.⁷⁷⁾ 연합군은 이와 같은 전과 외에도 러시아군 포로 10여명과 무수한 장비를 노획했으며, 러시아군에게 잡혀있던 曰可 女人 100여명을 구출했다. 조선군을 포함한 연합군 피해는 전사 120여명, 부상 230여명이었다. 청군의 피해만 보면, 甲軍 전사자 80여명, 水夫 전사자 30여명, 그리고 부상자 200여명이었다.⁷⁸⁾ 조선군의 피해는 전사자가 吉州 포수 尹戒人 등 8명, 중상자가 會寧 포수 徐戒

76) 이 전투 관련 내용은 모두 『북정록』 6월 초10일, 12일 내용을 참조.

77) РГАДА, Сибирский приказ фонд, ст.лб. 124, лл. 195-194(문서 내용 전개가 右에서 左의 逆順으로 표기됨); ДАИ, том 4, #64(1659. 10. 03), стр. 176. 한편, ДАИ 심문조서에는 전사자가 270명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심문조서(1660년 9월 3일)에는 220명으로 나와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220명 전사가 더 설득력이 있다. 전체 병력 540명 가운데 선발대로 미리 떠난 180명을 제외한 360명이 실제 전투에 참가했을 텐데, 그 중에서 생존자 95명 및 일부 육상 도주자 수를 고려할 때, 270명 전사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 반면에 220명 전사로 보면, 생존귀환자 95명, 육상 도주자 45명의 계산이 가능하다.

78) 『북정록』 6월 초10일, 16일.

【지도 2】 1, 2차 나선정벌 당시 전투 지역



守 등 15명, 총에는 맞았으나 경상자가 鐘城 포수 申景民 등 11명이었다. 사망자에 대해서 청군 사령관은 화장을 하라고 했으나, 신유는 조선의 예법에 화장이 없으며 그렇다고 시신을 메고 귀국할 수도 없으니 매장을 하겠다고 하고는, 흑룡강가 약간 높은 언덕에 同郷끼리 묻어주었다.⁷⁹⁾

승리를 거둔 연합군은 이들을 더 머물렀으나, 상류 쪽에서 내려올지도 모르는 또 다른 러시아군 선단(스테파노프의 선발대 약 180명 또는 별개의 선단)을 예상하여 더 이상의 전투를 수행하지 않은 채, 이틀 후에는 서둘러 다시 송화강으로 들어와 경계태세에 들어갔다.⁸⁰⁾ 한편, 애초 스테파노프의 본대와 떨어져 5일 정도 앞서서 흑룡강 상류로 올라갔던 선발대는 연합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스테파노프의 본대에 합류하려 하류로 내려오다가, 불탄 채 파손된 본대 전선의 잔해를 보고는 그대로 다시 상류 쪽으로 도주했다.⁸¹⁾ 이미 더 이상의 전투를 전개할 계획이 없는 연합군도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흑룡강 상류로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 영고담으로 귀환했다. 거기서 소탕전을 위해 더 주둔하라는 청군 사령관의 요구가 있었으나, 신유는 애초의 임무를 완수한 이상 더 머물 이유가 없음을 들어 집요하게 로비해, 마침내 허락을 받아내고 철군 길에 올라 8월 27일에 회령으로 귀환했다.⁸²⁾

이 2차 원정은 4년 전의 1차 원정에 비해, 비록 아군의 피해가 적지 않았으나,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로는 러시아 세력이 송화강을 타고 남쪽으로 깊숙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에 전개된 청과 러시아 사이의 전투는 대개 흑룡강을 따라 벌어졌다. 전투의 양상은 서로 비슷해, 대개 청군이 러시아군의 요새를 선제공격해 압박을 가하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는 1685년부터 청이 3년이 넘도록 흑룡강 상류에 위치한 러시아의 알바진(Albazin) 요새에 대공세를 퍼부은 것인데, 당시 청은 10,000~15,000명 정도의 병력을 투입하

79) 『북정록』 6월 10일, 11일, 16일. 전투 당시에 즉사한 자는 모두 7명이며, 다음날 매장된 자들은 이 7명이다. 나머지 한 명 穩城 포수 李忠仁은 심한 부상을 당했다가 이틀 후인 12일에 사망했다.

80) 『북정록』 6월 초10일~13일, 27일.

81) РГАДА, Сибирский приказ фонд, ст.лб. 124, л. 194.

82) 『북정록』 6월 25일~8월 27일.

고도 450~750명 정도의 병력으로 맞선 러시아군 요새를 끝내 힘으로 점령하지 못했다.⁸³⁾

이렇듯,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한 채 긴장을 유지하다가, 네르친스크조약(1689)에 따라 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이 문서상으로는 결정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약 30년 가까이 진행된 양국 사이의 무력충돌도 종식되었다. 청이 러시아의 남하를 대체로 흑룡강 선에서 막는 것으로 양국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⁸⁴⁾ 이에 따라 청도 더 이상 조선에 출병을 요구해 오지 않았고, 조선으로서는 소규모 병력을 두 차례 파병한 것으로 나선정벌을 끝낼 수 있었다.

맺음말

지금까지 165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나선정벌의 추이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 결론부에서는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굳이 반복해 요약하기를 지양하고, 나선정벌이 갖는 동아시아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그동안 17세기 동북아시아 정세를 논할 때에는 의례히 청의 남방 공략 과정, 조선과 청의 새로운 관계, 일본의 쇄국과 서양과의 교통 등에

83) 이 전투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John L. Evans, 1999, *Russian Expansion on the Amur, 1848-1860: The Push to the Pacific*,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pp. 6~11 참조. 이에 따르면 당시 알바진 요새는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방어에 급급했다. 네르친스크조약(1689)에 따라 이 일대를 청에게 넘기고 후퇴할 때, 알바진 요새의 생존자는 겨우 60여 명이었다.

84) 단, 네르친스크조약은 지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지명을 적지 않게 사용한 탓에, 흑룡강 상류 일대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국경선을 고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보리스 이바노비치 (성종환 옮김),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북 국경』, 동북아역사재단, 25~28쪽 참조.

중점을 두어 살피는 경향이 학계에 지배적이었다. 러시아의 등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바닷길을 따라 동아시아에 등장한 유럽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비해, 비슷한 시기에 육로로 아시아대륙을 관통해 시베리아를 장악하고 만주일대로 남하를 기도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흑룡강의 상류에 위치한 네르친스크에서 청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1689)은 세계사에서도 중시하는 사건이지만, 17세기 동북아시아 판도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소략하다.

나선정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해석은 1930년대 이나바가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17세기 중반 동북아시아에서 확대되던 러시아 세력을 청과 조선이 연합해 무력으로 저지한 점에 세계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극동지역을 통한 러시아의 남하 시도를 흑룡강 선에서 저지한 점을 높이 산 것이다. 또한 그는 이 나선정벌이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첫 접촉이었다는 점을 들어 외교사적 의의도 추가했다. 그뿐 아니라, 효종 대에 조선이 추진하던 북벌운동의 부수적인 성과라는 진단도 곁들였다. 청을 치기 위한 북벌의 준비과정에서 총수병을 키우며 군비를 증강했는데, 그것이 나선정벌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⁸⁵⁾

해방 후에는 국내 학자들도 나선정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역사적 의의를 설명했지만, 이나바의 해석을 답습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테면, 강주진·박태근·최소자 등은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남하를 조선이 무력으로 막은 점을 강조하며 의의를 부여하고, 조선과 러시아의 첫 접촉인 점을 들어 양국 사이의 외교사적 의의를 내세웠다.⁸⁶⁾ 그러나 이는 모두 이나바가 이미 지적한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었다. 전해종과 신기석은

85) 이상은 稻葉岩吉, 각주 2의 논문(상), 7쪽 및(하), 56~57쪽 참조.

86) 姜周鎭, 각주 3의 논문, 252 및 258쪽; 朴泰根, 각주 4의 논문, 253쪽; 崔韶子, 각주 3의 논문, 406쪽.

나선정벌을 효종이 추진하던 북벌운동의 부수적인 성과라고 해석했는데,⁸⁷⁾ 이 또한 이나바가 이미 제시한 그대로였다. 이렇듯, 나선정벌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의미 해석은 1930년대에 이나바가 해놓은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이나바의 해석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먼저, 나선정벌을 효종 대 전개된 북벌운동의 성과로 본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효종 대 북벌을 명분 삼아 軍營을 설치하는 등 군사력이 다소 증강되기는 했지만,⁸⁸⁾ 그 대부분은 사실상 국왕의 호위와 도성의 수비를 위한 부대였을 뿐, 청의 경내로 쳐들어가기 위한 목적의 공격부대는 전혀 아니었다. 이런 정도의 군사력 증강으로 청을 상대로 한 북벌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은 당시에 도 거의 없었다.⁸⁹⁾ 오히려 북벌운동은 삼전도 항복(1637)으로 야기된 왕실의 권위 추락과 국가통치이념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국내 질서를 확립하고 양반층의 지배자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내적 성격이 훨씬 강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⁹⁰⁾ 나선정벌에 동원된 포수도 앞에서 확인했듯이 1차와 2차 원정 모두 함경도 관내에서 지역에 따라 차출되었다. 중앙에서는 병력을 전혀 파견하지 않았다. 요컨대, 효종 대에 발생한 두 사안인 북벌준비와 나선정벌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었던 것이다.⁹¹⁾

나선정벌이 조선과 러시아의 첫 조우인 점을 들어 외교사적 의의를

87) 全海宗, 각주 3의 논문, 393쪽; 申基碩, 각주 5의 책, 234~236쪽. 한편, 북벌론과 나선정벌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반윤홍과 최소자는 약간의 의문을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전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반윤홍, 각주 4의 논문, 143쪽; 崔韶子, 각주 3의 논문, 401, 406쪽 참조.

88) 李泰鎭, 1985,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54~173쪽.

89) 李離和, 1975, 「북벌론의 사상사적 검토」, 『창작과 비평』 38,

90) 계승범, 2012, 「조선의 18세기와 脫中華 문제」, 『역사학보』 213, 73~75쪽.

91) 청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억지로 추진한 나선정벌을 조선의 능동적인 선택에 따른 북벌의 일환으로 각색한 것은 18세기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계승범, 각주 8의 책, 259~275 쪽 참조.

부여한 것도 문제이다. 우선 원정 당시에 조선과 러시아 양국 중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실학자 李瀼(1681~1763)과 李圭景(1788~1856) 등이 나선정벌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으나,⁹²⁾ 사실과는 거리가 먼 조악한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나선정벌을 들어 외교사적 의의를 논하는 것은 사실과 잘 맞지 않는다. 서로 상대방이 누구지도 몰랐고, 대화나 협상을 한 것도 아니므로, 그것을 외교관계로 볼 수는 없다.

17세기 중반에 만주 일대로 남하하려던 러시아 세력을 저지한 나선정벌은 비단 동아시아 역사뿐 아니라 세계사 차원에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나선정벌의 주체를 조선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약 30년간에 걸쳐 수행한 숭한 전투 중에서 나선정벌은 그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것도 격전 끝에 러시아 세력을 송화강 일대에서 몰아낸 2차 원정이 해당될 뿐, 1차 원정의 중요도는 더 낮다. 이런 점을 인정할 때, 나선정벌은 비록 조선이 주체로서 단행한 원정은 아니었지만, 명·청 교체에 뒤이어 동북아시아에 새롭게 등장한 러시아 세력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가 공간적으로 나뉘어 재편되는 과정에 조선이 비록 타의에 의해서일지라도 직접 연루된 점에서 그 사실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그 공간을 송화강을 중심으로 한 북만주 일대로 국한할 때 의미가 커진다 할 수 있다.

1650년대부터 약 40년간 흑룡강을 따라 전개된 청과 러시아의 군사충돌은 네르친스크조약(1689)으로 일단락되었다. 이후로 흑룡강을 경계로 200년 가까이 평화롭게 유지되던 동북아시아의 균형은 19세기에 들어 북경조약(1860)에 따라 러시아가 연해주를 장악함으로써 다시 요동치기 시

92) 『星湖僿說』(민족문화추진회, 1978), 권1, 天地門, 「黑龍江源」 및 권8, 人事門, 「車漢日記」 및 『五洲衍文長箋散稿』(민족문화추진회 온라인 공개 자료), 天地編, 地理類, 人種, 「羅禪辨證說」 참조.

작했다.⁹³⁾ 이 과정에서 조선과 러시아는 마침내 두만강을 경계로 서로 접하게 되었고, 개항기의 혼란 속에서 조선과 러시아가 밀접하게 관련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20세기 들어 한때 일본이 만주까지 장악했을 때도 러시아(소련)는 여전히 연해주에 건재했다. 戰後에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한국전쟁(1950~1953)에 깊숙이 연루되는 등,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판도에서 결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에 러시아가 처음 등장한 17세기 중반에 발생한 나선정벌은 단순히 당시의 새로운 정세를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역학 구도의 역사적 연원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특히 당시에는 상대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지라도 조선과 러시아가 첫 만남을 무력충돌로 시작한 점은 19세기 이후에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할 숱한 전쟁에 조선(한국)과 러시아가 연루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예시해 준다고도 할 수 있다.

93) 19세기 중반에 재개된 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분쟁 및 그것이 1680년의 북경조약으로 일단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Evans, 각주 83의 책에 상세하다.

참고문헌

1. 사료

- 『老峰先生文集』(『韓國歷代文集叢書』 421~422권)
『同文彙考』
『謄錄類抄』(奎15080)
『北征錄』(朴泰根, 1980, 『國譯 北征日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 수록)
『備邊司謄錄』
『星湖僊說』(민족문화추진회, 1978)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通文館志』(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朔方備乘』(『續修四庫全書』 39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歷史文獻補編 17世紀中俄關係文件選譯』(北京: 商務印書館, 1989)
『平定羅刹方略』(『續修四庫全書』 39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Дополнения к Актам историческим,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Эдуард
Прац, 1846-1872, том 3
РГАДА, *Сибирский приказ фонд*, стлб. 124

2. 논저

- 姜周鎭, 1977, 「韓國과 러시아의 外交史的 考察」 『大丘史學』 12·13
계승범, 2009,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계승범, 2012, 「조선의 18세기와 탈중화 문제」 『역사학보』 213
朴泰根, 1980, 『國譯 北征日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朴泰根, 1982, 「朝鮮軍의 黑龍江出兵(1654-1658)」 『韓國史論』 9

- 반운홍, 2001, 「備邊司의 羅禪征伐 籌劃에 대하여: 효종조 寧古塔 파병절목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11
- 배우성, 2010, 「만주에 관한 지식과 조선후기사회」 『역사학보』 208
- 申基碩, 1979, 『間島領有權에 關한 研究』, 탐구당
- 申基碩, 1980, 『北征日記: 附 北行日錄 車漢日記』, 탐구당
- 李康七, 1982, 「朝鮮 孝宗代 羅禪征伐과 彼我 鳥銃에 대한 小考」 『古文化』 20
- 李離和, 1975, 「북벌론의 사상사적 검토」 『창작과 비평』 38
- 李泰鎭, 1985,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 全海宗, 1977, 「호란 후의 대청관계」 『韓國史』 12, 國史編纂委員會
- 崔韶子, 1997, 「청국과의 관계」, 『한국사』 32, 國史編纂委員會
- 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 稻葉岩吉, 1934, 「朝鮮孝宗朝於兩次滿洲出兵就」 『靑丘學叢』 15 · 16
- 보리스 이바노비치 (성종환 옮김),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북국경』, 동북아역사재단
- Evans, John L., 1999, *Russian Expansion on the Amur, 1848 ~1860: The Push to the Pacific*,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 Fisher, Raymond H., 1943, *The Russian Fur Trade, 1550 ~17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bson, James R., 1969, *Feeding the Russian Fur Trade: Provisionment of the Okhotsk Seaboard and the kamchatka Peninsula, 1639-1856*, Madison, Milwauke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Innis, Harold A., 1999, *The Fur Trade in Canad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Mancall, Mark, 1971, *Russia and China: Their Diplomatic Relations to 172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tin, Janet, 1986, *Treasure of the Land of Darkness: The Fur Trade and Its Significance for Medieval Russia*,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te, F. W., 1999, *Imperial China, 900 ~180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ebes, Joseph S., 1977, “The Fragmentation of the Mongols During the Ming Dynasty and Their Step-by-Step Conquest by the Manchus and Russians”, *The Canada-Mongolia Review*, Vol. 3, no. 1
- Struve, Lynn A., 1984, *The Southern Ming, 1644 ~166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akeman, Jr., Frederic, 1985,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Zenone, Volpicelli (pseud. Vladimir), 1899, *Russia on the Pacific and the Siberian Railway*, London: Sampson Low, Maston & Company

Abstract

The Manchu-Korean Expeditions to the Amur: A New Historical Setting in Mid-Seventeenth-Century Northeast Asia

Kye, Seung Bum

With the Manchu conquest of Ming China in the mid-1600s, Manchuria became a sparsely populated region: the majority of the Manchu population left their homeland and rushed to China. The Qing authority also concentrated all its energy on the military campaigns against Ming loyalists in the south. The Koreans on the peninsula also abandoned Manchuria, not only because they regarded it as a barbaric land but also because they never wanted to offend the Manchu. It was in this situation that new-comers began to infiltrate into northern Manchuria alongside the Amur (Heilung) River and the Sungari River. The Manchu-Korean joint expeditions to the Amur were planned and launched subsequently. In the early phase of the Manchu-Russian/Cossack conflicts, the Manchu suffered some successive defeats because they were surpassed in firepower and mobility. In the mid-1650s, for this reason, the Manchu authority demanded twice that Chosŏn send some troops armed with Korean-type muskets. Referring to Korean and Russian sources, this paper examines and provides the details of the expeditions and interprets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expeditions in the context of the emergence of a new political topography in Northeast Asia in the mid-1600s.

Keywords : Chosŏn, Russia, Sungari River, Amur River, Yilan, Ningguta,
Hyojong, Sin Yu

